

2020년 말 코로나 블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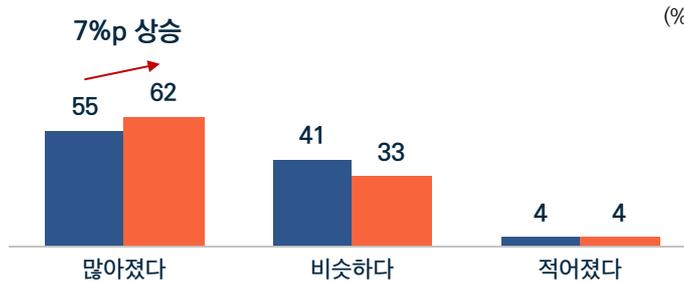
2



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, 전국민의 62% '우울하다'!

- KBS가 2021년 신년 여론조사(2020년 12월말 실시)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(코로나블루)을 조사 했는데,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'많아졌다'는 응답이 62%로 나타났는데, 이는 9월 추석 때 조사한 55% 보다도 7%p 증가한 수치로,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코로나19 이후 코로나블루(우울감) 변화(2020. 9월* vs 12월**)



*자료 출처: KBS, '2020 추석 여론조사', 2020.10.02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1명, 전화면접, 2020.09.26~28)

**자료 출처: KBS, '2021 신년 여론조사', 2021.01.02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0명,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, 2021.12.27.-29)

*** '많아졌다'는 '매우+그런 편이다', '적어졌다'는 '매우+그런 편이다'의 수치임

● 우울감 증가, '주부' 76%, '자영업자' 72% 등에서 높았다!

-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인식은 '여성'(68%)이 남성(55%)보다 높았고, '주부'(76%)와 '자영업'(72%)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 제한에 따라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와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코로나19 이후 '우울감 많아졌다' 응답률(성별, 직업별)



*자료출처: KBS, '2021 신년 여론조사', 2021.01.02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0명,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, 2021.12.27.-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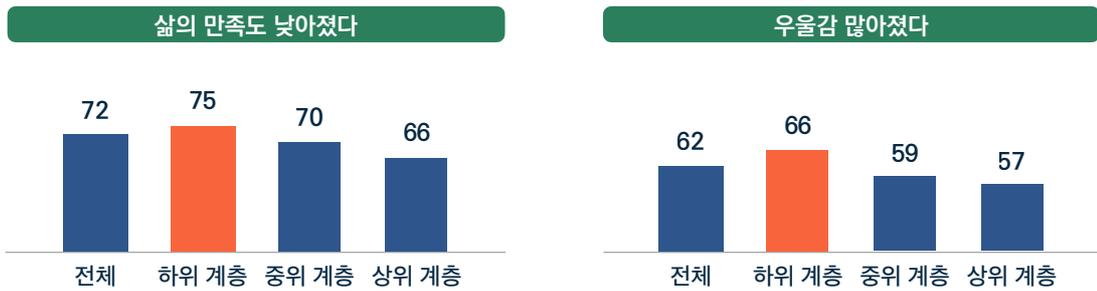
** '많아졌다'는 '매우+그런 편이다' 수치임

●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‘하위 계층’에서 ‘삶의 만족도’ 낮아지고, ‘우울감’ 높아졌다!

- 거리두기 강도가 상승하면서 삶의 위축에 따른 ‘우울감’ 증가는 ‘삶의 만족도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, 특히 자신을 ‘하위 계층’이라고 인식하는 층의 75%가 삶의 만족도가 ‘낮아졌다’고 응답했다. ‘삶의 만족도’와 ‘우울감’은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는데 이들 계층에 한 세심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.

[그림] 코로나19 이전 대비 계층 간 삶의 변화

(%)



*자료출처: KBS, '2021 신년 여론조사', 2021.01.02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, 1,000명,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, 2021.12.27.-29)

** '낮아졌다'는 '매우+그런 편이다'와 '많아졌다'는 '매우+그런 편이다' 수치임